

납세오류, 기업이 세관 정보 받아 스스로 바로잡는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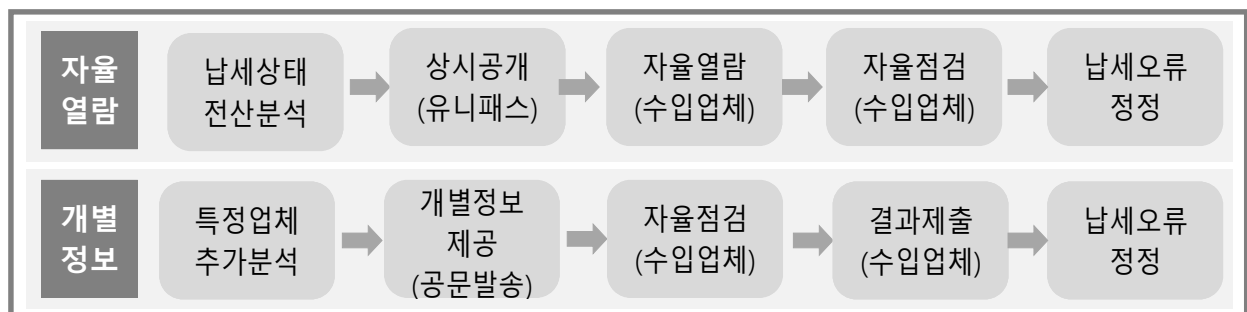
- 관세청, 2025년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중간점검 ... 열람 62%·정정 24% 증가
- 점검기간 120일로 확대,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등 제도 활성화방안 추진

-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,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람 업체는 62% 증가, 세액 정정 업체는 24% 증가하였다고 밝혔다.

※ ('25.7) 열람업체 4,034개사, 세액 정정업체 204개사 / ('24.7) 열람업체 2,483개사, 세액 정정업체 165개사

- 납세신고도움정보(이하 '도움정보')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 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(UNI-PASS)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,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.

< 납세신고도움정보 개요 >



- 수입기업은 과세가격,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,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.

<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사례 >

- 신규 수입한 플라스틱 재질 포장 용기(품목분류(HS)3923.10, 관세율 6.5%)를 종이 재질(품목분류(HS)4819.50, 관세율 0%)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알려 업체가 4백만 원 수정신고 ⇨ 향후 5년간 누적 시 약 2천 4백만 원 추징 예방
- 외환송금자료와 수입신고자료 간 차이 분석을 통해 업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면서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사실을 안내해 업체 스스로 4.8억 원 수정신고

□ 중간 점검 결과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전체 열람 업체 4,034개사 중 자율열람한 업체는 3,446개사로, 전년 같은 기간 1,939개사에 비해 약 78% 증가하였다.
- ②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341개사가 스스로 점검에 참여했으며, 이 가운데 128개사가 총 74억원의 세액을 정정해 (정정률 약 38%) 오류를 치유*했다.

* 과세가격 오류(37억 원, 비중 50%), 품목분류 오류 (35억 원, 비중 48%)가 대부분

□ 관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입기업의 충분한 점검기간 보장, 품목 분류 오류 조기 점검 안내 등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.

- 개별정보 공문에 대한 점검기간의 경우, 공문을 받은 후로부터 최장 60일(2개월)이었으나, 이제는 최장 120일(4개월)까지 늘어났다. 이는 다국적 기업 등 자료 확인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.

※ (현행) 최초30일 + 연장30일 = 60일 ⇨ (향후) 최초30일 + 연장90일 = 120일

- 안내 항목의 경우, ‘품목분류’ 항목에서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 (HS)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 1~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정 위험을 예방한다.

-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*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추가 안내하여,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판단을 지원할 계획이다.

*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

□ 상반기 도움정보를 통해 품목분류 오류를 조기 점검한 업체 관계자는 “추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, 오류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”며 제도에 만족을 표했다.

- 관세청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“납세신고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”라며,
 - “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적극 활용하여 납세 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, 관세청도 제도를 꾸준히 제공·보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, 국가관세종합정보 시스템(<https://unipass.customs.go.kr>)에 기업별 아이디(ID), 패스워드(PW)를 통해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.

붙임. 납세신고도움정보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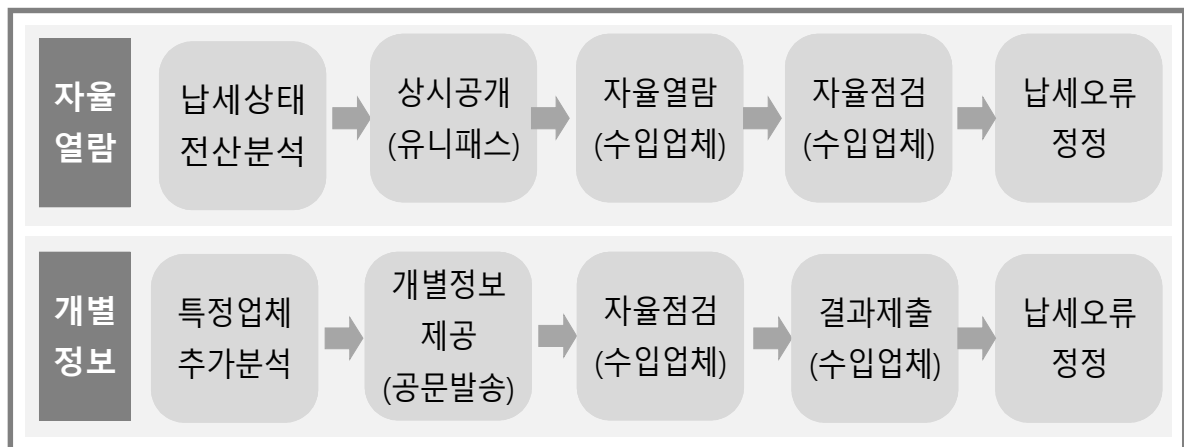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관세청 심사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용철 (042-481-7860)
		담당자	사무관	채정균 (042-481-7812)



붙임

납세신고도움정보 개요

- (개요) 수입기업(약 23만개社)의 납세상태를 진단하고, 납세신고오류 가능성을 유니패스(UNI-PASS)에 공개하여 상시 열람하는 서비스('19.11월 도입)
- (진단방법)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(세적자료, 외환정보 등 과세자료)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상호 비교하는 방법으로 납세신고 오류를 진단
- (제공방식) 공개된 정보를 기업 스스로 열람하는 '자율열람방식'과, 세관이 개별기업의 오류 가능성을 추가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'개별정보제공방식'으로 구분



정보제공항목

항 목	항목수	정보제공 내역
일반현황	8	수출입 실적·감면·체납 등 현황 자료
납세유의사항	4	과세신고, 품목분류, 환급, 기타 유의사항
기타 자료	7	절세 정보, 법 개정사항, 환급·감면 안내

- (열람방법) UNI-PASS 접속(로그인) ⇨ 첫화면에서 납세신고도움정보조회

